

# 마른 산에 눈 내리니 '생명' 들은 조용히 체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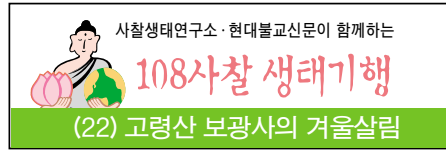
대웅전 뒤로 멀찌감치 떨어진 산자락에 석불상이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다. 그 아래로 활엽수들도 가지마다 눈꽃을 피웠다.



도솔암 토굴과 굴참나무 겹질.



만세루 전나무숲 (왼쪽)과 어실각 향나무(아래).



보광사 풍경.

영조대왕 때 원찰로 지정

기둥·서까래 굵고 튼튼

:

일제 때 용성스님 주석했던

도솔암 쓰러지기 일보직전

:

정상에 올라서면

불국산 사괘산 북한산 등

한눈에 굽어 보여

하늘은 계절에 따라 천변만화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겨울에는 눈 덮인 설산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겨울 숲은 눈을 이불로 삼으며 동안거(冬安居)를 난다. 이번 겨울은 해제(解除)를 저만큼 앞둔 겨울 보광사를 찾았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혹한 끝에 나선 걸음이다.

보광사로 가는 숲길 가장자리 햇살 밖에 '연우지석(戀友之石)'이 서 있다. 지난 1994년 불교개혁에 동분서주하던 중 교통신고로 졸지에 세상을 떠난 종태 스님을 추모해 도반스님들이 세운 비석이다. 비석은 종태 스님의 본사인 지리산 화엄사의 돌이라고 한다. 월분이 산화되면서 생성된 붉은색이 이루지 못한 꿈인 양 해마다 짙어간다.

비석 건너편 눈 덮인 얼음장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몇 마리 곤충박이가 영혼의 동반인 양 튀려고 지껄이며 호로록 호로록 날아다닌다.

"...전송하면서 / 살고 싶네 // 죽은 친구는 조용히 찾아와 / 봄날의 물 속에서 / 껍질말로 속살거리지 / 죽고 사는 것은 물소리 같다고..."(마종기)

보광사의 본래 이름인 '고령사(高靈寺)'는 뒷산인 고령산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러다가 조선조 영조가 부근에 있는 생모 속린 폐씨의 묘소를 소령원(昭寧園)으로 추봉하면서 보광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원찰로 삼았다고 전한다.

고색창연이 날로 더해가는 대웅전 건물은 흙을 쓰지 않은 편벽이다. 현악기의 공명통 역할을 해서 안에서 목탁을 치면 그 울림이 짝나 아름답다.

만세루는 조선조 당시 법당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었던 왕실의 상궁들을 위해 따로 마련한 예불공간이다. 왕실의 원찰이 아니므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근래 시멘트 한 삽 쓰지 않고 옛 그대로 해체복원을 해서 눈 맛이 좋다. 기둥과 서까래를 비롯한 부재들도 궁실에서 보듯 굵고 튼실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전통건물에다 알루미늄 새시로 짠 유리문을 달았다는 점이다. 전통건물은 전통성에 충실하지 않으면 생태건축이 되기 어렵다.

어실각 앞 향나무는 영조 임금의 어머니 숙빈을 기리며 심었다고 전한다. 수령이 3백년을 넘어 심재(心材)에 부후(腐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침 제(祭)를 마친 유족들이 땅자의 유품을 들고 와 소대(燒臺)에 넣고 태우고 있다. 시커먼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 땅자의 옷 한 벌도 예전에는 무명이나 삼베 같은 천연섬유였으나, 요즘은 모두가 화학섬유라서 함부로 태우기가 겁들적이다. 옷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때문이다. 이전 절에서도 선별해서 소각해야 할 일이다.

현식대에 얹힌 공양물들은 제를 마치고 난 뒤 금씩 떼어다 주위의 새와 동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린 것이다. 현식대 주위로 새들의 발자국이 모여 있다. 눈 때문에 며칠을 굶은 토끼도 내려와 발자국을 남겼다. 민류일체(萬類一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러나 요즘 농약과 유전자 조작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드물어서 적이 걱정이다.

대웅전 뒤로 멀찌감치 떨어진 산자락에 석불상이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다. 부처님 등 뒤로 백발이 성성한 노장처럼 눈 덮인 고령산 능선이 지나가고 있다. 그 아래로 활엽수들도 가지마다 눈꽃을 피웠다.

눈꽃에도 종류가 있다. 설화(雪花)는 나뭇가지에 앉은 눈이요, 빙화(氷花)는 가지에서 눈이 녹아 물방

물처럼 얼어붙은 것이다. 무송(霧松)은 서리가 나뭇가지에 내려 그대로 얼어붙어 눈처럼 보이는 것이다. 무빙(霧氷)은 공기 중의 습기가 나뭇가지나 줄기에 부딪쳐 급히 얼어버린 성에의 일종이다.

겨울산은 볼 것이 없다고 한다. 풀은 말라 죽고, 나무들은 낙엽을 떨어뜨렸고, 곤충들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구름과 골짜기와 산길은 모두 눈에 덮여 빈사(飢死) 상태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들은 생태계를 떠나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뿐, 모두가 제 자리에서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뿐.

노랑딱새가 동자처럼 앞서 도솔암 길을 안내한다. 오색딱새처럼 한 마리는 나무 꼭대기에서 사시마지 목탁을 내리고 있다. 조선 중기 문인인 송순(宋純)은 딱따구리 소리를 '박박탁탁(剝剝啄啄)'이라고 표현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것은 구멍을 파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딱따구리는 강한 부리로 나무를 툴 툴 쳐서 그 안에 벌레가 숨었는지를 알아낸다. '그 안에 뭐 계시오?' 하며 '박박탁탁' 노르를 해대는 것이다.

산길 주변 골짜기에 다래나무가 간간히 눈에 띈다. 세상을 등진 은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고 '다래'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닌지 모르겠다. <동의보감>에 다래 안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멎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으니, 은자들이 세간에 살면서 열 받힌 가슴을 다래로 식혔을 법도 하다.

도솔암 오르는 숲길은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느티나무, 죽동백, 단풍나무, 서어나

무...등들이 총림을 이루고 있다. 몇 그루 소나무가 살아남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전성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식생의 천이를 감안해도 오늘날의 고령산 숲 모습은 4만세기 전 영조 당시에도 이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굴참나무가 참나무 세력을 이끌고 있다.

굴참나무는 코르크 성질의 껍질을 보면 다른 참나무와 쉽게 구별된다. 먼 옛날 스님들이 절첩산중에 임시로 거처할 토굴을 지을 때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지붕재료가 바로 굴참나무 껍질(굴폐)이었을 것이다.

해발 450미터에 자리하고 있는 도솔암은 일제 때 융성 큰스님이 1915년부터 3년간 주석하며 빼앗긴 나라의 미래를 고뇌하던 곳이라 한다. 100년 된 노송은 그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도솔암은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언제 내릴지도 모를 불사 현수막이 세월이 퇴색된 채 삭풍 끝에 떨리고 있다.

또 유감스런 것은 도솔천에 와서까지 함부로 버려진 음식을 쓰레기를 봐야한다는 사실이다.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진 곳은 바로 보광사 상수원 계곡이 아니던가. 이런 도무지 도솔천의 모습이 아니다.

정상에 오르면 천산만봉이 눈 아래 굽어보인다. 불국산, 사괘산, 도봉산, 북한산, 감악산... 날이 쾌청하면 개성 송악산이 자운빛으로 보인다고 한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철(시화생태연구소장)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대장전(보물 제145호) | 목각부처상 목각대왕(보물 제189호) | 영부처 지장보살-영장대 | 보광전 상존불 | 경연당 | 교지(보물 제729호) | 자운루(문화재 자료 제143호) | 영남계림강변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이어 왔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장성할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영험한 부처님 탄음이었던 것입니다.

윤에 갑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중속에 걸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 모여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세시기). 특히 윤달에 생전에수재를 행하기 전에 방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렇듯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감응사, 부석사, 청량사, 봉경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양없는 궁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안 할장**

**용문사 순례는 길**  
 매키: 동서울(미남) 출발(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전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대전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경연보수 (10분 소요) | 용문저수지 (5분 소요)  
 대승사 | 감응사 | 용문사 | 부석사 | 30분 소요 | 봉경사  
 · 용문사에서 5분거리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지원 대원처럼 주지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